인 사 말

이 준 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지난 여름, 우리는 백년만의 기록적 폭염은 물론 열대야가 거의 한달이나 지속되는 재난에 가까운 이상기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현상은 아니었고, 지구가 열이 나서 아프다는 말이 나올 만큼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습니다.

평소에도 여름은 식품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지만, 지난 여름에는 그야말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온이 30~35도 사이일 때 식중독의 원인인 병원성대장균이 2시간 만에 1마리에서 100만 마리까지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 밀집사육으로 키워지던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이 폭염을 못 견디고 폐사한 숫자가 무려 500만두를 훌쩍 넘어섰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장의 잉어, 전복, 우럭 등의 피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식품업계 입장에서도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충을 겪었지만, 소비자들은 폭염과 열대야에 고생하는 동시에 물론 한층 더 높아진 식료품 가격과 식품위생 및 안전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후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처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실례로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유명 TV프로그램에서도 비위생적인 식자재 관리나 업주들의 안전불감증 등의 부정적인 이슈가 수시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식품안전에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일동후디스가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가장 엄격한 수준의 품질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생산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정부당국이 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감시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소모성 논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는 학계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다양한 심포지움과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의미있는 수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온 (사)한국식품위생안정성학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 또한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회의 발전과 식품안전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